

STRATEGY 21

통권36호 Vol.18, No.1, Spring 2015

중국의 해양강국 추구하고 새로운 미중관계

김 흥 규*

-
- I. 중국 정체성의 변화와 해양강국 지향
 - II. 21세기 미중 관계의 전개
 - 1. 시진핑 시기 이전의 미중관계
 - 2.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전략 방향의 조정
 - 3. “새로운 강대국 관계”의 수용을 둘러싼 미중관계
 - III. 중국의 부상과 해양강국의 추진
 - 1. 해양 실크로드 전략
 - 2. 해군력 강화
 - IV. 결 론
-

* 교수,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I. 중국 정체성의 변화와 해양강국 지향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시기 들어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의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후진타오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공간과 국가역량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과히 “중국의 부상 2.0(中國崛起 2.0)”이라 할 수 있는 변화의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

“중국의 부상 2.0” 시기의 도래라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조짐은 중국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이나 리커창(李克強)과 같은 최고 지도자들의 담론이나 중국의 위상을 둘러싼 정체성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구성주의 국제정치 이론이 이미 충분히 강조한 바 있듯이 정체성의 변화는 일상성을 훨씬 뛰어 넘는 정책의 변화로 연결될 개연성이 크다.²⁾ 중국은 미국에 대해 “새로운 강대국 관계(新型大國關係)”를 구축하자고 스스로없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대국’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중국이 사용하는 ‘대국’이란 개념이 비록 서구 국제정치학에서 사용하는 ‘강대국’이란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가장 근접한 개념임에는 틀림없다.³⁾ 중국의 ‘대국’은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여전히 양적인 규모를 의미하는 데 주안점이 주어지지만, 국제정치적인 함의에 있어 서구 국가들이 사용하는 강대국에 가장 근접하게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가 처음 제시되었을 때, 이에 대한 번역 역시 “강대국: Great Power”이었다.⁴⁾

중국은 이제 발전도상국으로서 국가발전의 목표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자신의 존재감을 낮추고 역량을 함양하는 데 집중하는 도광양희(韜光養晦)적인

1) 필자는 중국전문가로서 이 글은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 본 미중관계에 더 초점이 가 있고, 중국 중심의 시각이 아마도(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더 강조될 지도 모른다.

2) 중국 대외관계 사고는 흔히 정치 현실주의가 주도적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친야칭(진야칭)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78-2007년까지 중국내 연구의 주류는 정치 현실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로 넘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들어 구성주의의 약진이 크게 두드러진다. 陳亞青, “中國國際關係論,” 王逸舟 主編, 『中國對外關係轉型 30年』(北京: 社會科學出版社, 2008). 그리고 중국내 국제관계이론의 발전에 대한 연구는 좋고, “중국 국제관계이론의 수용과 발전 연구 소고,” 『한국정치연구』 제19집 제2호 2010.

3) 중국이 사용하는 ‘대국(大國)’이란 개념은 종종 서구에서 사용하는 ‘강대국’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왕이웨이(王義桅)교수의 용법은 중국의 대국이란 개념이 ‘지역성 강대국’과 ‘중견국’들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임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王義桅, “中國作爲領導型國家的全球布局,” 『南風窗(South Reviews)』 2015年 5期 (<http://www.nfcmag.com/article/5371.html>) (검색일: 2015. 3. 19)

4) 중국은 처음 이 개념을 사용하다가, 위협적이고 Hard Power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후에 보다 중립적인 ‘Major Power’로 바꾸었고, 현재는 “Major Country”란 개념을 대체하였다.

전략에 머물러 있지 않다.⁵⁾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발전도상국’이라기보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중인 강대국’에 초점이 놓여있다. 중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 국가라는 지역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강대국을 추구하는 지역 국가가 아니라 유라시아를 아우르고 세계의 남과 북, 동과 서를 연결하는 허브 국가 혹은 중앙국가가 되기를 추구하고 있다.⁶⁾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기존의 전통적인 대륙국가라는 정체성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해양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은 이제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아우르는 대륙-해양 국가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이다.⁷⁾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가 대전략은 이에 따라 전략적 비전을 지니고 중국의 해양전략을 구체화하면서 해양강국을 지향하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이미 15세기 초 명나라 장군 정허(鄭和)가 7차례에 걸친 해양 대원정을 이끌어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떨친 바 있다.⁸⁾ 그 이후 해양을 폐쇄하고 오랜 잠에 빠졌던 중국은 19세기에 이르러 서구 해양세력의 압박에 직면하여 해양의 중요성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20세기 들어서도 이러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은 존재하였으나, 마오쩌둥(毛澤東) 시절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국력의 열세로 해양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릴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⁹⁾

중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양 해군의 해양 전략 구상과 해군력 증강의 꿈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다. 류화칭(劉華青) 제독이 그 주창자이다. 류 제독은 기존의 연안 방어를 위주로 한 소극적인 전략에서 탈피하여, 근해와 원양을 아우르는 중국의 해양 방어 전략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연안과 근해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각기 2000년과 2010년까지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¹⁰⁾ 이러한 구상은 1990년대 중국의 경제발전 위주의 전략에 따라

5) 이는 중국 국무원 참사이자 인민대 교수인 스인홍(時殷弘)이 주장한 말이다. 陳一新, “習崇毛抑鄧 大戰略的挑戰,” 『國政評論』 104-022號, 2015年 3月 2日 참조.

6) 이러한 사고는 후진타오 시기 국제관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 알려져 있고, 시진핑 시기에 도 여전히 주요 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진 북경대 왕지쓰 교수가 2014년 11월 중국 군부가 주관하는 향산논단 회의에서 발제시 언급한 바 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을 담은 관련 글은 <http://www.43577.com/culture/1567/76685.shtml> (검색일: 2015.3.21)

7) 이러한 중국의 정체성 변화와 함의를 정리한 글은 이지용, “중국의 국가정체성 진화와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변화,” 『국제관계연구』 제19권 제1호 (2014년 봄호), pp.77-114.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구분에 대해서는 Robert Ross, “China’s Naval National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34, No.2 (Fall 2009), pp.46-48.

8) 정화의 원정과 서방의 원정대 행로 및 규모에 대한 비교는 <https://www.flickr.com/photos/flungingpictures/2045333854/> (검색일: 2015.3.19)

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劉中民(이용빈 역), 『중국 근대 해양방어 사상사(中國近代海防思想史論)』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중국 해군의 현대화가 지체되자, 제1도련을 방어할 수 역량(소위 말하는 반접근/반거부: Anti-Access/Area Defense, A2/AD)을 2020년까지, 제2도련은 2050년까지 구축하도록 재설정되었다.¹¹⁾ 그리고 제1도련은 북방의 쿠릴열도, 류큐제도, 타이완, 남중국해, 필리핀을 연결하는 지역이며, 제2도련은 일본 오가사와 군도에서부터 괌, 사이판, 마리아나 해구까지를 포괄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양해군(Blue Water Navy) 전략은 1960년대 이후 구체화되기 시작한 소련의 적극적 해양방어 전략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시기 들어 이러한 꿈을 보다 거대한 국가대전략의 틀에서 구체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시진핑이 집권하는 2012년 제18차 당대회 보고에서 기존의 당 대회 보고와는 달리 중국의 해양강국 추진, 해양권익 보호, 해양경제 발전 전략을 가장 구체적이고 완결된 형태로 제시하였다.¹²⁾ 중국 인민대 국제문제(國際事務)연구소 소장 왕이웨이(王義桅)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중국은 이제 시진핑 시기 들어 “농업문명에서 산업문명으로, 내륙성 문명에서 해양성 문명으로, 지역적 문명에서 세계적인 문명으로 대전환을 하고 있다”고 요약하였다.¹³⁾

이 논문은 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이러한 중국의 해양 강국화 전략이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미중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¹⁴⁾ 중국과 바다로 연해있으면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정책과 해양 강국화 추진은 새로운 외교안보적인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실정이다.¹⁵⁾ 중국은 최근 2015년 2월 19일 전국 해양공작회의를 개최하는 등 해양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해양국의 해양발전 전략연구소, 해양과학원위원의 해양정책과 법률연구소,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해양전략연구소, 해

10) You Ji, “China’s Navaql Strategy and Transformation,” Lawrence W Prabhakar, Joshua Ho, Sam Bateman (eds.), *The Evolving Maritime Balance of Power in the Aisa-Pacific* (Singapore: World Scientific, 2006), p.76.

11) You Ji, p.71. 도련에 대한 최근 설명은 김민석, “중국의 해양강국 지향과 지역 해양안보 함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편, 『2014-2015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p.159-165.

12) 이에 대한 분석은 이지용, pp.96-97.

13) 王義桅, “中國作爲領導型國家的全球布局.”

14) 이 주제와 관련한 탁월한 선제 연구는 윤석준,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와 도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편, 『2014-2015 동아시아 해양안보정세와 전망』(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p.11-27.

15) 물론 한국에도 이 분야에 한림대 김태호 교수 그리고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윤석준 박사와 같은 탁월한 연구자들이 존재한다.

양경제와 해양법연구원 등 관방계 연구소는 물론이고 중국 해양대학의 해양발전연구원, 북경대학 해양연구원, 상해교통대 해양연구원 등을 설립하여 해양 관련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우한대학이 중앙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에 힘입어 기존의 변경지역 연구원(2007년 설립, 中國邊界研究院)을 확대하여 2011년 변경 및 해양연구원(中國邊界與海洋研究院)을 설립하였다.

시진핑 주석이 해양강국화 추구를 통해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경쟁적인 세력균형(Adversarial balance of power)이 아니라 협력적인 세력균형(Associated balance of power)에 중점을 둔 전략을 통해 중국의 꿈을 이뤄나가겠다는 것이다.¹⁶⁾ 오바마 대통령은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이에 긍정적이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합의를 유보하고 있다. 새로운 조정이 진행 중인 미중 관계는 아마도 해양에서 가시화될 개연성이 크다. 전통적인 해양 세력인 미국과 새로이 해양세력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해양 정책을 전개하는 중국 사이의 갈등과 접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곳은 바로 해양이기 때문이다.

Ⅱ. 21세기 미중 관계의 전개

1. 시진핑 시기 이전의 미중관계

21세기 들어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 변화이다.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에는 중국의 예상보다 빠른 부상이 자리 잡고 있다. 21세기 초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에 과도하게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동안 중국은 급속히 경제성장을 하면서, 차분히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일견, 미국의 세계전략에 순응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를 강화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러시아와도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동시에 동남아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우호적인 관계와 영향력을 증진시켰다. 동북아

16) 이 두 개념에 대해서는 Richard Little, "Deconstructing the Balance of Power: Two Traditions of Though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15 (1989), pp.87-100.

지역에서도 북핵문제에 대응하면서 6자회담을 주관하면서 지역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한국과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고,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수립하였다. 일본과도 2000년대 중반이후 빈번한 정상외교를 통해 2007년 ‘전략적 호혜’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¹⁷⁾

중국은 지난 30년간 거의 10%에 달하는 평균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이 되면 영국과 프랑스를 능가하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2008년 독일, 2010년에는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이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영향력 증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집권초기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던 부시행정부는 2005년 드디어 중국을 ‘지역적인 이해상관자(stakeholder)’로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미국은 그간 중국과의 관계에서 거부했던 전략개념을 사용한 외교안보 대화를 시작하였고, 경제대화 역시 별도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¹⁸⁾ 그런 의미에서 2005년은 미중관계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긋는 한해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의 이면에는 당시 미국 내에서 대중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전개된 논쟁의 결과였다. 미국 지도부와 중국 전문가들은 이 논쟁을 통해 첫째, 중국의 부상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둘째, 이러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구 냉전체제와 같은 봉쇄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세 번째, 중국 대외정책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어, 중국에 관여와 소통을 전제한 헤징정책을 통해 미국 중심의 질서로 중국의 행태를 유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¹⁹⁾

2008~2009년 발생한 미국발 세계적 금융위기는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엄청난 손상을 야기하였다. 세계 경제의 위기가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 자체에서 발생하였고,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미국 스스로 이를 수습할 역량이 없음을 드러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급속히 증대되었고, 중국의 대외적 자심감과 민족주의적인 자부심도 크게 고양되었다. 심지어 중국조차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맞이한 이러한 국제무대에서의 중국 위상의 변화는 중국 지도부에게도 상당히 당혹스런 현상이었다.²⁰⁾

17) 이러한 중국 외교 개념에 대한 설명은 즐고, “중국 동반자외교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2호 (2009)을 참조.

18) 미국은 당시 ‘전략대화’라는 명칭 대신 ‘고위급 대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중국은 이를 ‘전략 대화’라고 지칭하였다. 이후 미국 역시 중국과의 ‘전략대화’ 개념을 수용하였다.

19) 이 내용은 필자가 수차례에 걸친 워싱턴 방문에서 Kenneth Lieberthal, Jonathan Pollack, Jeffrey Bader 등과의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중국은 가장 주목받는 국가가 되었고,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주요 국제회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중국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기 2009년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전략경제대화 및 안보대화까지 통합하여 ‘전략·경제 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주제 역시 양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논의하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중 양강(G2)체제’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중국은 이를 냉전시기 미·소 양극(兩極)체제²¹⁾와는 다른 좀 더 다극화되고 다원적이며 복합적인 새로운 국제질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이제 상호의존성 및 취약성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우위 혹은 이익을 추구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직면하였다.

미중은 21세기 들어 복합적인 경쟁과 협력이 공진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²²⁾ 구조적으로 ‘세력전이’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점차 경쟁, 갈등, 충돌을 겪을 개연성이 커진다는 측면과 새로운 지구적인 도전(금융위기,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식량, 대량살상무기 확산, 북한·이란핵 문제 등)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하지 않을 수 없어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양국은 “미중 관계가 21세기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중 하나”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기후변화, 북핵문제, 무역과 환율 등으로 의제를 확대하고 ‘전략·경제 대화’ 수립에서 보듯이 상호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2010년 들어 양국 간 무역마찰, 위안화 절상, 달라이라마 문제, 對대만 무기수출 문제, 이란핵 문제, 동아시아 문제(남중국해 영토분쟁, 천안함 사건 등) 등을 둘러싼 상호갈등이 강화되었다. 특히 중일 간 닌자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이나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의 중국 측의 무퇴한 행동, 중국의 ‘핵심이익’ 존중 주장을 둘러싼 미국의 반발 등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었다. 특히 중국의 대외형태가 공세적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강화되었고,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는 인식과 중국내 민족주

20) 이에 대한 판단은 당시 필자의 중국 당, 정, 군 내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과의 인터뷰 결과이다.

21) 냉전시기 미·소양극체제는 핵무기의 상호확증파괴 능력 및 탄도탄요격 미사일(ABM: Anti-Ballistic Missile)체제 등 군사적 균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상호의존적이기보다는 상호경쟁적인 ‘냉전’체제이다.

22) 시진핑 시기 이전의 미중관계에 대한 정리는 줄고, “시진핑시기 미중의 새로운 강대국 관계 형성 전망과 대한반도 정책,” 『국방연구』 제56권 제3호 (2013년 9월), pp.33-36.

의의 발흥으로 양국 간의 경쟁구도가 더 강조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미중관계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하게 되었고, 그 구체적인 결과물이 바로 2011년 1월의 미중 정상회담이었다. 당시 중국내 대외전략사상의 주류는 중국이 발전도상국이란 자아정체성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대외관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와 ‘방어적 현실주의’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2010년 이후 중국의 내부 논쟁을 분석해 보면, “핵심이익”에 대한 과도한 적용이나 중국의 공세적인 태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주류를 형성하였다.²³⁾ 국제정세가 다극화의 추세로 진행되는 것은 맞으나, 미국의 패권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이 주류였다. 즉, 중국의 부상은 분명한 현상이지만, 미국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미정책은 주로 중국이 발전도상국이라는 인식하에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세계패권국인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은 피하면서 다자주의나 국제기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국가이익을 확보한다는 사고가 주류였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1월 19일 열린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미중은 소위 ‘G2’체제의 도래를 상호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세계질서 운용에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세계 질서 운용의 동반자로서 인정한 것이다. 2011년 미중 정상회담은 미중 양국관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의제였으며,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상호존중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포괄적인 관계’ 구축에 합의하였다.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상호존중, 호혜공영의 협력동반자관계 건설”이라는 양국관계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미중은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이슈를 둘러싼 경쟁에서 탈피하는 대신,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규범에 대한 경쟁 게임의 양상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쟁은 시진핑 시기 들어 보다 본격화된다.

23) 중국내 대외전략사과의 분화에 대해서는 즐고,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안보 전략의 진화,” 『외교』 제11호 (2014. 07), pp.34-36.

2.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전략 방향의 조정

2009년 출범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 1기의 대중 전략은 “2005년 대중 인식”의 연속성속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탈냉전시기에 미국 행정부들이 초기에는 중국과 관계가 불편했다가 점차 개선되는 패턴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초기부터 중국을 적극적인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이면서 ‘전략·경제’대화 기제를 신설하였고, 중국과 글로벌한 차원에서 공동이익을 확대하면서, 신뢰를 증진시키고, 대신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국제 공공재 제공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려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헤징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2009년부터 제기된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 혹은 이후 2011년 하반기 이후 “재균형(Rebalancing)”으로 명명된 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하였다.²⁴⁾ 오바마 1기 당시 재균형 전략의 도입은 2010년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에 대응하여, 미국 측이 대중 압박 전략을 표면화 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평가가 일반적이었고, 중국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미국의 전략적 재균형 정책은 미국이 태평양 국가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²⁵⁾ 2012년 1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의 국방전략지침(Defense Strategic Guidance)은 향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우선순위가 아시아와 중국에 있음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²⁶⁾ 미국은 2020년까지 해군력과 공군력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하려 하고 있다.²⁷⁾ 미국의 “재균형”전략은 중동에 집중된 지정학적 고려를 아시아에도 안배하고, 군사부문에 집중되었던 미국의 힘의 투자를 경제, 외교, 문화 등의 방면에 고루 안배하면서 그간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된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

24) 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글은, 엄태암, 유지용, 권보람,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정책과 한반도 안보』(서울: KIDA Press, 2015). 그 밖에 이상현, “아태지역 정세와 미국의 전략적 재균형,” 『외교』 제11호 (2014, 07), pp.17-33.

25) 이는 중국과 미묘한 해석의 차이를 낳는 데,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아시아에 연한 태평양 국가가 맞지만 아시아 대륙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王緝思, “中美最大的战略互疑是兩個秩序,” <http://finance.ifeng.com/news/special/SinoUSrelations5/> (검색일: 2015. 3. 21). 이러한 맥락에서 2014년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이라는 구호에서 미국은 비아시아 국가인 셈이다.

26)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January 3, 2012.

27) Sam LaGrone, “Work: Sixty Percent of U.S. Navy and Air Force Will Be Based in Pacific by 2020,” *USNI*, September 30, 2014.

한 정책전환의 근거에는 아태 지역의 경제적인 잠재력에 대한 미국의 평가도 연관되어 있었다.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국내적인 경제 불황과 재정 위기에 시달리고 있던 미국의 입장에서 장차 국제정치경제질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동시에 연 7~8%대의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로 역동적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아태지역을 무시할 수 없다. 미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mmission, NIC)가 2012년 발표한 미래전략보고서(Global Trends 2030: NIC 2030)는 2030년이 되면 경제규모, 인구, 기술투자, 군사비를 종합해 산정한 글로벌 지배력에서 중국의 역량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고, 아시아가 북미와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²⁸⁾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 국가인 미국이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장기적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일본과 군사동맹을 강화하였고, 베트남, 필리핀, 호주 및 말레이시아 등과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등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양태를 띠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이후 첫 외국 방문지로 동남아시아, 특히 그간 중국의 대동남아 핵심거점이라 알려진 미얀마를 선택해 미국의 아시아 중시가 강화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일본 및 한국과의 삼자 안보 및 정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또 동 지역 내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중국이 가입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역내 다자무역협력기체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추진하여 미국 중심의 경제협력체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출범한 오바마 2기 정부는 대중정책에 있어서 제1기의 노선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였다. 2013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이 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톰 도닐론(Tom Donilon)은 “오바마의 미국 정부는 중국과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 국가 간 협력과 경쟁의 요인이 많이 있지만 미중 관계는 장기간 효율적으로 유지돼 왔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오바마 2기 정부도 대외정책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²⁹⁾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대중국 포위망이 아니냐는 반발에 대해, 2013년 6월 개최된 미중

28) NIC 2030: *Alternative Worlds*,

<https://globaltrends2030.files.wordpress.com/2012/11/global-trends-2030-november2012.pdf> (검색일: 2015.3.21)

2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11809212509011&outlink=1> (검색일: 2015.3.21)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시진핑 주석에게 답변하였다. 즉 첫째, 재균형 정책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미국의 대 아태정책으로서 우선,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 둘째, 인도나 인도네시아와 같이 부상하는 신흥강국과의 동반자 관계 구축 및 심화, 셋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와 같은 아시아 안보 및 지역 메커니즘 구축, 넷째, 공동번영을 위한 TPP와 같은 경제 메커니즘 구축, 다섯째, 중국과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강대국으로서 책임을 준수하는 중국, 안정되고 번영하는 중국이 미국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도 강조하였다.³⁰⁾

미국 리언 파네타(Leon Panetta) 국방장관 역시 2012년 시진핑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중국과 군사적인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미국의 아태지역 개입이 중국의 발전과 양립할 수 있으며, 중국과 군사적 협력 역시 서서히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³¹⁾ 파네타는 중국 군사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시아에서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확장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을 목표로 한 것이고, 역내 맹방들과 미국의 방위협력 심화는 중국이 번영하는 것을 도와 온 안보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시도가 아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또한 “중국과 관계를 맺으면서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확장시키려는 것이다. 재균형 정책은 두 태평양의 ‘강대국 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련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오바마 2기의 대중정책은 1기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으나 차이점은 미국이 경제·재정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재균형 전략을 실제 이행할 의지와 여력이 존재하는 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제2기 출범시부터 재정절벽(Fiscal Cliff)과 연방지출 자동 삭감(Sequestration)이라는 난제에 봉착하였다. 그 중

30) The White House, “Press Briefing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Tom Donilon,” June 8, 2013,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6/08/press-briefing-national-security-advisor-tom-donilon> (검색일: 2013.7.15). 이러한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중정책에 대한 입장 천명은 2014년 베이징에서 가진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 답변을 통해 반복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11/12/remarks-president-obama-and-president-xi-jinping-joint-press-conference> (검색일: 2015.3.21)

31) Reuters, “China’s Xi meets Panetta, wants better military ties with U.S” (20120919), <http://egloos.zum.com/blackace/v/5679058> (검색일: 2015.3.21)

에는 향후 10년 사이 5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군사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재균형 정책의 핵심인 아태지역의 군사력 증강 및 재배치 계획은 군사비 삭감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실제 작전과 전쟁수행 능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나 시리아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분석해 보면, 미국은 스스로 마지노선이라 규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군사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군사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나날이 강해지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하는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여전히 여력이 부족한 미국으로서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은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결국 중국과의 타협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대해 북경대 왕지쓰(王缉思) 교수는 그 “소리는 요란하지만 실제 집행은 더디다”라고 평가하고 있다.³²⁾

3. “새로운 강대국 관계”의 수용을 둘러싼 미중관계

오바마의 대중 정책은 ‘2005년 대중정책에 대한 미국 내 합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리고 국가정보위원회가 제시한 『NIC 2025』 및 『NIC 2030』에 나타난 중장기적인 세계 추세 전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핵심은 중국은 부상한다는 것이며, 이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며, 세계의 권력은 분산되어 가고 있으며, 미국은 더 이상 단독으로 국제경찰 노릇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잘 관리하면서 협력을 추진·확대해 나가는 것이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크게 부담스런 일이 되었다. 다만,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견제하느냐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도전이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일동맹 및 한미동맹을 활용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32) 王缉思, “中美最大的战略互疑是兩個秩序,”

<http://finance.ifeng.com/news/special/SinoUSrelations5/> (검색일: 2015.3.21)

하지만 이미 2012년 발행한 『NIC 2030』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최근 들어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동맹을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본이 역사인식이나 위안부 문제 등에서 일탈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억제전략으로서 보통국가화 하는 것을 더욱 지지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합의하였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다만, 중일간의 갈등에서 일본의 과도한 행태에 연루되어 미중간의 군사적 대결로 치닫는 상황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일본을 관리하려 노력하였다. 이는 다오위다오 열도를 놓고 중일간 분쟁이 한창일 때 2013년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조셉 바이든 부통령이 일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대신 중일간의 위기관리 체제구축을 권고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³³⁾

2013년 6월 오바마-시진핑간의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장차) 수립해 나가기로 원칙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보다 널리 “새로운 국제관계”의 틀로 활용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쉽게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는 비판이 워싱턴 중국전문가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었다.³⁴⁾

2013년 6월 미국 서니랜드에서 개최한 미중 정상회담이후 양측이 발표한 공동기자회견문을 보면, 미중 양국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기조로 양국 관계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도 차이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양측은 각자 미묘한 강조점의 차이를 보여주었고, 어찌 보면 다른 해석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듯 보였다. 중국은 “쌍방이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존중하며, 협력하여 번영하는 데 공동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다 현재형의 형태로 긍정적인 태도로 보도하였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미중 간 “새로운 강대국 관계” 건설에 대해 상당히 공들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양국관계가 구체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강대국 관계’ 건설을 추진하는 한 예”로써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나온다.³⁵⁾ 하지만 미국

33) 이에 대해서는 “바이든, ‘위기관리체제’ 제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03/0200000000AKR20131203204800073.HHTML?input=1179m> (검색일: 2015.3.21)

34) 물론, 미국 내에는 이러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의 형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하다. 우선, 중국이 실제 이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형성할 역량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 신행 강대국 관계의 내용도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필자의 미국 워싱턴 인터뷰(2013. 9. 4-5일)

국무부 측의 관련 공식 자료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중국이 적극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강대국 관계”라는 개념의 사용을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다만, 기자들의 질문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군사와 정치 분야에서 상호 전략적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 미중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의 사례가 된다”라고 언급하여 전제조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하였다.³⁵⁾

2014년 11월 북경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에서 미중은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은 전례가 없었던 것이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회담 전에 아직 어느 외부정상에게도 개방한 적인 없는 잉타이(瀛臺)라는 중난하이(中南海)의 남쪽호수에 위치한 황궁을 거닐면서 양자간 4시간 반에 걸친 대단히 사적인 대화시간을 가진 것이었다.³⁷⁾ 직선적인 성격의 두 정상은 장시간에 걸쳐 양자의 모든 관심사에 대해 대단히 유용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상호 대단히 만족스런 모습을 보였다. 미중은 최근 불거진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정책과 미중 갈등의 고양이라는 대내외의 시선에 대해 미중이 보다 협력적으로 양자관계를 운용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공식 회견문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양자간 미묘한 차이를 잘 느낄 수 있다. 중국 측의 설명에 의하면 미중 양국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열심히 구축해 나가는 데 동의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미국 역시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대화를 통해 차이와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건설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언급되었다.³⁸⁾ 시진핑은 이 ‘새로운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 여섯가지 중점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고위급간에 소통과 교류 강화, 두 번째, 상호존중, 셋째, 각 영역에서의 교류협력 심화, 넷째, 갈등적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건설적인 방향에서 관리, 다섯째, 아태지역에서의 포용적인 협력(協作), 여섯째, 각종 지역 및 지구적 차원의 도전에 공동 대응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 측 자료에 의하면 시진핑은 미중 양국이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건설해 나가는 데 동의했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 오바마 대통

35) http://www.gov.cn/1dhd/2013-06/08content_2422916.htm (검색일: 2015.3.21)

36) 이에 대한 자료는

<http://iipdigital.usembassy.gov/st/english/texttrans/2013/06/20130608275760.html#axzz3VjeihZrU> (검색일: 2015.3.21)

37)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2014년 11월 중국 군부가 주관한 향산논단에 참석했을 때 들은 내용이다.

38) <http://cpc.people.com.cn/n/2014/1113/c64094-26012270.html> (검색일: 2015.3.21)

령은 이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미국 내에서 일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대중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신 “강력하고 협력적인 대중관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아시아 회귀”정책의 요체라고(at the heart of our pivot to Asia) 언급하고 있다.³⁹⁾

이처럼 새로운 강대국 관계 수립을 둘러싼 미중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에 대해 북경대 왕지쓰 교수는 미국은 중국이 제시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에 관한 개념, 원칙, 전략은 이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 다만 그 전술, 기술, 국부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이 제시하는 상호 “불충돌, 불대항, 공영”의 원칙에는 찬성하나, “상호존중”의 원칙에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가 실제 온전히 형성되기 위해서는 냉전적 사유에서 자유로운 1960년대 이후 출생한 지도부가 등장하고, 상호 다방면에서 협력과 관리기제가 작동하는 1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보았다.⁴⁰⁾ 중국 현대국제문제연구원의 다웨이(達崑) 미국센터 소장은 미중간의 “새로운 강대국 관계” 형성에 대해 더 비판적이다. 미중 간에 불신이 여전히 크고, 미국에게 ‘상호존중’ 원칙은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을 받아들이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아직 국제관계 이론의 측면에서 이를 추진할 만큼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군사영역에서 위기관리체제의 형성과 장기간의 신뢰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⁴¹⁾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나 중국 측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평가하자면 미중은 상호간에 “새로운 강대국 관계”의 형성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식과 실현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내제되어 있다. 이러한 혼란은 2014년 미중 간의 해양 경쟁과 협력이 복합적으로 뒤엉킨 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잘 노정되고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 전략의 전개로 인해 전통적인 해양세력이 미국과의 경쟁 및 불신이 심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였다. 미국 역시 중국의 점증하는 해양전력에 대응하여 2010년부터 「공해전투(Air-Sea Battle)」 작전 개념을 발전시켜 왔고, 항공모함 및 핵잠수함 전력의 증강, 전력의 재배치 및 동맹국들과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중은 동시에

39)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11/12/remarks-president-obama-and-president-xi-jinping-joint-press-conference> (검색일: 2015. 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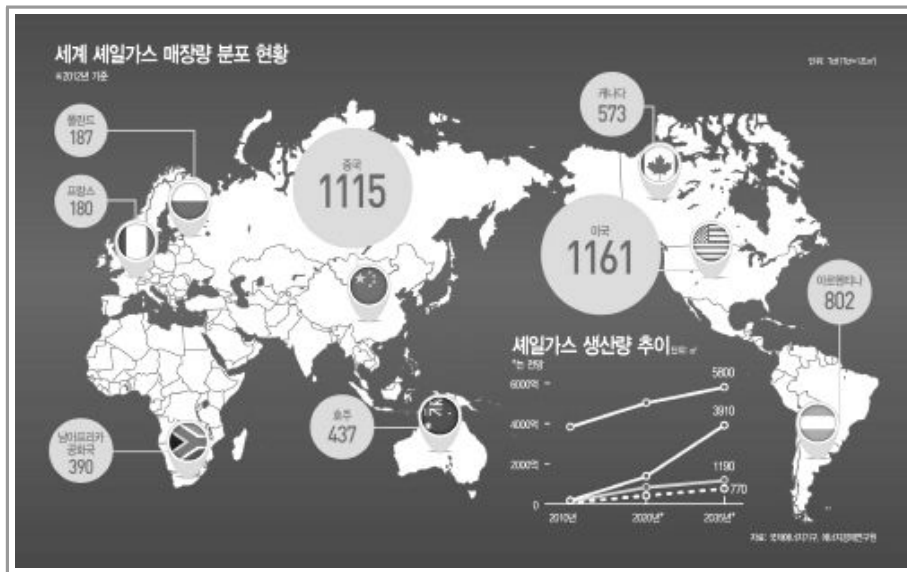
40) 王緝思, “中美新型大國關係或10年後成型,” <http://hk.crntt.com/crn-webapp/search/allDetail.jsp?id=103566907&sw=%E7%8E%8B%E7%BC%89%E6%80%9D> (검색일: 2015. 3. 24)

41) <http://opinion.caixin.com/2014-09-22/100731843.html> (검색일: 2015. 3. 24)

중국이 요구한 “새로운 군사관계” 수립에 부분적으로 서로 호응하면서 2014년 최초로 중국 해군을 미군 주도의 림팩(RIMPAC) 훈련에 참가시켰다.⁴²⁾ 또한 미중 해군 간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해양에서의 위기관리 체계(CUES: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를 시행하는 합의를 도출하였다.⁴³⁾

국제정치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한 “셰일가스 혁명”은 미국의 위상을 급속히 재고시켰다. 상용화란 측면에서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셰일가스 재고량을 지닌 국가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미국은 중동의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러시아의 원유나 천연가스에 폭락으로 인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국제에너지 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셰일가스 순수입국이던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로 2017년에는 순수출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2016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⁴⁴⁾

〈그림 1〉 세계 셰일가스 매장량 분포도



* 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512010003409> (검색일: 2015.3.21)

42) 이 내용을 잘 정리한 글은 윤석준,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와 도전.”

43) James Goldrick, “Cue Co-operation?,” *IHS Jane’s Defense Weekly*, May 21, 2014.

44)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512010003409> (검색일: 2015.3.21)

더 이상 세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를 같이 엮어서 거론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이제 미국 경제가 부활하며 국제질서를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3.0’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⁴⁵⁾ 아산정책연구원은 세일가스 혁명 등으로 개선된 미국의 경제 지표 등 각종 통계 수치를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친 연구보고서 ‘팍스 아메리카나 3.0’을 펴냈다. 이에 따라 미중 사이에 균형을 고민하던 한국 역시 다시 한미 동맹 강화로 안보 정책의 무게 추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라 제기되었다.⁴⁶⁾ 이러한 새로운 형세변화가 2014년 11월 APEC을 계기로 중국의 “신(新)도광양회” 전략을 불러왔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⁴⁷⁾

세일가스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과연 중국이 공세적으로 미국을 대체하여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중국 내 전략사고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⁴⁸⁾ 후진타오 시기 중국은 여전히 발전도상국론적인 자아정체성이 주류였고, 시진핑 시기 들어서서도 신흥 강대국론자들로 완전히 대체된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 신흥 강대국론자들조차도 미국의 상대적 국력 우위를 인정하고 있었다. 최근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이 주관한 “중국국제문제 고급논단(中國國際問題高級論壇) 2015”에서 진찬룽(金燦榮), 리쌍양(李向陽), 스인홍(時殷弘), 친야칭(秦亞青), 그리고 자칭궈(賈慶國)와 같은 중국의 핵심 국제관계 전문가들도 이러한 판단에 동의하고 있다.⁴⁹⁾ 왕지쓰 교수 역시 일관되게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미국의 역량이 하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⁵⁰⁾ 미국과 중국은 다 같이 역량이 강화되는 새로운 시기, 즉, 팍스 아메리카나 3.0과 중국의 부상 2.0의 시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와는 전혀 새로운 상황이며, 과연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강대국 관계”가 이러한 변화를 담지해 내면서 미

45) 팍스아메리카나 1.0은 1940년 대 브레턴우즈 시대이고, 2.0은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보수개혁을 통해 냉전종식으로 이끈 시대를 지칭한다.

46) 이에 대한 보도는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224920&cloc=joongang%7Caricle%7Ccomment (검색일: 2015.3.21)

47) 이 개념은 아산정책연구원 김한권 박사가 2015년 1월 31일 개최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세미나에서 한중관계 관련 발제에서 사용한 것이다.

48) 줄고,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안보 전략의 진화,” pp.34-36.

49) 이에 대해서는 <http://world.people.com.cn/GB/8212/191816/392165/> (검색일: 2015.3.15)

50) 王緝思, “中美最大的战略互疑是兩個秩序,” p.2.

중 관계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지 중국 외교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다.

시진핑이 이에 대해 던진 메시지는 대단히 복합적이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하드파워를 통한 미국과의 대립보다는 경제력과 문화력을 바탕으로 보다 포용적인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바둑의 포석을 놓는 것과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륙국가의 정체성에 이어 해양국가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새로운 시도는 미중 간에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영역으로 남는 것도 사실이다. 시진핑 시기 대외정책이 제시하는 친·성·혜·용(親誠惠容)의 포용적인 주변 외교와 국익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실리외교 사이에서의 조화도 과제로 남아있다. 이는 중국의 새로운 해양 강국화 구상과 해양 정책의 추진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 속에 잘 드러난다.

Ⅲ. 중국의 부상과 해양강국의 추진

중국의 해양강국화 전략은 시진핑 시기 들어 보다 구체화되고 야심차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는 크게 새로운 실크로드 구상의 일부로서 해양실크로드 구상과 해군력의 강화에서 나타났다. 중국이 해양에 대해 주목한 것은 1990년대 중반 UN 해양법이 통과되면서 자원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탈냉전시기 미일이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은 전략적 공간의 중요성에 새로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비록 1980년대 중반 류화칭 제독에 의해 중국 대양해군의 목표가 제시되었지만 당시 중국의 경제상황은 군사비보다는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 해군력은 연안방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개혁개방 정책이 진전되어 감에 따라 중국에서는 점차 경제발전이 과거 사회주의라는 ‘동원 이데올로기’를 대신하여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사안이 되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해외 시장 구축과 에너지 수입은 중국의 핵심이해와 직결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2009년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 되었고, 2012년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교역국이 되었다. 중국의 대외무역 의존도도 2013년 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달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수입의 거의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해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중국

의 경제발전과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유지는 ‘해양 역량의 강화’와 직결된 사안이 되었고, 결국 중국은 본격적으로 ‘해양 강국화’를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21세기 들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와 더욱 긴밀하게 결합되었고, 세계시장 경제체제의 일부분이 되었다. 중국은 경제규모에 있어서 2010년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구매력 지수(PPP)로는 2014년에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⁵¹⁾ 21세기 들어 이러한 추세 속에서 중국의 ‘해양’에 대한 관심이 점차 구체화되었다. 2002년 개최된 제16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장쩌민 당시 총서기는 경제건설과 경제체제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서 경제대국 발전전략과 해양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11차 5개년 계획(2006-2010) 기간 중에는 해양자원개발은 중점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⁵²⁾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은 2006년에 중국의 해양대국화 추진을 선언하였다.

2007년 개최된 제17차 당 대회 보고에서는 신성장 주력산업 중 하나로 해양산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선언하였다.⁵³⁾ 그리고 2012년 개최된 제18차 당 대회 보고에서는 해양 자원개발, 해양 경제발전, 해양 권익보호, 해양강국 건설 등 해양과 관련한 언급들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리고 해공군력과 같은 군사력 증강에 의해 이러한 권익의 보장을 확고히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⁵⁴⁾ 이지용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이 제18차 당 대회 보고가 역대 ‘보고’ 중 해양발전과 진출 전략과 관련해 가장 완결된 정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⁵⁵⁾ 중국의 당 대회 보고서를 통해 평가할 때, 중국의 해양에 대한 관심은 21세기 들어 본격화 되어 점차 구체화하면서 시진핑 시기를 여는 제18차 당 대회에서 가장 정리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중국의 해양강국 전략은 해양실크로드 구상과 해군력 증강에 의해 가장 분명하게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51) 이에 대한 보도는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54> (검색일: 2015.3.24)

52) 당 대회보고는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7/65446/4526308.html> (검색일: 2015.3.24). 이지용, “중국의 국가정체성 진화와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변화,” p.96.

53) 이에 대한 자료는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106155/106156/6430009.html> (검색일: 2015.3.24)

54) 보고서 전문은 <http://cpc.people.com.cn/n/2012/1118/c64094-19612151.html> (검색일: 2015.3.24)

55) 이지용, “중국의 국가정체성 진화와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변화,” p.97.

1. 해양 실크로드 전략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개념이 최초로 공식화 된 것은 2013년 10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행한 연설이다. 시 주석은 “아세안 국가들과 해양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공동으로 건설하자”고 제안하였다.⁵⁶⁾ 이러한 시진핑의 제안은 이미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에서 ‘실크로드경제 지대’의 건설과 연계하여 신 실크로드 구상이라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이 되었다.

이 전략 구상이 나오기 직전 2010년대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 광범위한 해양 분쟁에 직면하였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부르네이 및 일본 등과 해양영토와 자원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었고, 한국과도 남해 해상 경계 획정문제를 놓고 잠재적 갈등관계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지역 강대국인 인도의 견제와 갈등에 직면해 있었다. 중국 위협론의 급증과 주변 국가들과 갈등이 증폭된 것은 그 배후에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이 본격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림 2〉 해양을 둘러싼 미중 간의 견제와 갈등 구도



* 출처: http://temi.repubblica.it/UserFiles/limes-heartland/Image/Maps/map_america_china.jpg (검색일: 2015.3.21)

56) 徐僑新, 『中國新常態』(北京: 人民出版社, 2014), p.101.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생명줄과 같은 에너지 공급을 거의 말라 카 해협을 통해 수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이미 2004년에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일단 유사시 미국의 해상봉쇄에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육로를 통한 실크로드 건설과 에너지 송유관 건설을 추진해 미국과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우회로를 택하고 있다. 동시에 해상으로도 말라카 해협을 지나지 않는 항구의 획득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얀마의 시트웨항, 스리랑카의 함반 토타항,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그리고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의 건설을 지원해 사용권을 획득하였다. 이어 케냐의 라무항, 탄자니아의 바가모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리처드만항을 연결하는 거대한 진주목걸이형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거나⁵⁷⁾ 협약체결 단계에 있다.

중국은 북한을 포함해 태국, 캄보디아 및 미얀마 등 아시아·태평양 항구 10곳, 그리고 아프리카 5곳 등 적어도 15곳 이상을 중국 해군의 거점 항구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은 예멘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발행하는 주간신문인 귀지셴취다오(國際先驅導)는 비슷한 시기에 예멘 아덴 항을 거론했다.

57) '진주목걸이' 가설은 2005년 미국의 컨설팅 회사 부즈 알렌 헤밀턴(Booz Allen Hamilton)이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다. 여기서 진주 목걸이라 하는 이유는 항구와 항구를 연결하면서 항로가 엮이는 모습이 진주목걸이가 걸린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에 대한 설명은 [http://en.wikipedia.org/wiki/String_of_Pearls_\(Indian_Ocean\)](http://en.wikipedia.org/wiki/String_of_Pearls_(Indian_Ocean)) (검색일: 2015.3.21) 그리고 추가적으로 http://tamilnation.co/intframe/indian_ocean/060701string_of_pearls.htm 및 Christopher J. Pehrson, *String of Pearls: meeting the challenge of china's rising power across the asian littoral* (July 2006) at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dffiles/PUB721.pdf> (검색일: 2015.3.21)

〈그림 3〉 중국의 해양 전략



* 출처: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075293
(검색일: 2015.3.21)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전략 구상은 중국의 대국가전략(大局戰略)에 지정학적 전략사고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전략적 공간에 대한 점유에 주목한 것이다. 이 구상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에 대응하는 성격을 지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책이 입안되기 이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진핑 시기 들어 이 구상은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정면충돌을 피하면서도 중국의 에너지 수급 및 해상 이익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오히려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중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에 국한된 국가가 아니다. 중국의 해상 영향력은 말라카 서쪽에서부터 인도양 주변,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동안을 거쳐 서안으로 확장 중에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 라인은 유럽과 남아메리카까지 연결된 세계적인 해상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은 말라카 동쪽의 하이난 섬, 타이완,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거대한 해상 실크로드도 건설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은 중국이 이들 해상 네트워크된 항구에 점진적으로 군항 건설을 추진하고 중국 유조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사적 용도로 활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⁵⁸⁾ 결국 중국의 21세

기 해양 실크로드를 중국의 경제적 이익 및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인 확보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대응하여 미국의 포위망 돌파는 물론이고, 중국의 군사력을 세계적으로 투사하는 전략 라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⁵⁹⁾

2. 해군력 강화

중국의 해군력 강화현상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 중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 마오쩌둥 시절 중국은 대륙국가라는 정체성과 현실적인 국력의 제약으로 육군 중심의 군사전략을 유지했다. 중국의 해군력을 제고할 수 있게 해 준 변화가 류화칭 제독의 재임기간(1982-1987)에 발생했다.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국지전 전략을 채택하면서 중국 영내가 아닌 중국 역외에서 전쟁이 가능하다는 전략사고를 지니게 되었다.⁶⁰⁾ 이에 부응하면서 류화칭 제독은 중국의 해양 전략을 연안방어 전략에서 해안에서 보다 멀리 떨어진 근해방어 전략으로 전회하였다.⁶¹⁾ 그 후 중국은 1990년대 군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현대적·고기술 조건하 국지전쟁”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는 양보다는 질을 갖춘 군대, 과학과 기술력을 갖춘 군대로 변환한다는 목표로 노력을 경주하였다. 중국의 해군 전략 역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면서 ‘대만 유사사태’에 대비하고, ‘근해작전 역량을 갖춘 해군력’을 갖추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시진핑 집권 시기 이전까지 전반적인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을 통해 드러난 중국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국방력 강화보다는 다른 분야에 있었다.⁶²⁾ 특히 후진타오 시기 말기 중국 지도부는 일

58) <http://www.dailymail.co.uk/indiahome/indianews/article-2566881/Chinas-maritime-silk-road-proposals-not-peaceful-seem.html>(검색일: 2015.3.15)

59) (검색일: 2015.3.15.); Lucio Blanco Pitlo III, “China’s One belt, One Road to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075293Where?” The Diplomat (February 17, 2015). 중국의 이러한 투사가 신중하고 완만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Morgan Clemens, “The Maritime Silk Road and the PLA: Part Two,” China Brief Vol. XV, Issue7, April 3, 2015.

60) 중국 군사전략에 대한 이해는 Ellis Joffe, *The Chinese Army After Mao*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Ch. 4.

61) 이에 대해서는 김태호,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 추이,” 「Strategy 21」 제21호 (2008년 봄, 여름호), p.4.

62) 실제 중국의 국방비가 두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한 1990-2000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중국 국방비

방적으로 중국의 군비 증가율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였고, 2010년 일본과의 분쟁에서 중국 군부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일종의 중국 지도부에 대한 압력이기도 하였다.⁶³⁾ 중국의 군사비가 내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의미 있는 배분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은 시진핑 시기 들어서라 할 수 있다. 시진핑은 2012년 광저우 군구 시찰 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꿈’을 강조하면서, 이를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강군의 꿈’이라 해석하였다. 전쟁을 할 수 있고, 전쟁을 시작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⁶⁴⁾

중국의 해군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된 것은 중국이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인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의 군사 역량 역시 국가 경제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지 않고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중국은 GDP대비 약 4%를 사용하는 미국에 비해 GDP대비 1.3% 내외의 국방비, 그리고 아마도 민간과 연계되거나 산정되지 않은 군사비를 감안한 GDP대비 2.0% 규모의 군사비 할당만으로도 세계 2위 규모의 국방비를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다.⁶⁵⁾ 추후에도 중국은 급격히 국방비 증가율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2030년대가 되면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과 유사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군부는 2004년에는 최초로 새로운 과학기술 추이를 반영한 “정보화 조건하 국지전쟁” 전략의 추진을 목표로 제시하였다.⁶⁶⁾ 중국은 2020년까지 정보화의 주요한 진전을 이룩하고, 2050년까지 군사변혁을 이룩하여 국방 현대화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⁶⁷⁾ 이는 소위 말하는 제2 도련까지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양 해군의 꿈을 꾀은 중국 해군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해외의 국가이익과 국민 보호, 에너지 수송로 보호, 통일 준비를 위해 대만 해협 접근 거부 능력 확보, 그리고 궁극적

의 평균 증가율은 여전히 중국 정부지출의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63) 필자의 북경 인터뷰 (2012. 5. 30)

64) 习近平, 『习近平: 谈治国理政』(北京: 外文出版社, 2014), p.219.

65) 중국의 군사비 계산과 관련해서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제시한 계산법을 활용한 줄고, “중국군 현대화 방향과 함의: ‘2006 중국국방백서’ 분석을 넘어서서,” 『주요국제문제분석』(외교안보연구원, 2007. 3. 8)

66) 2004년 중국 국방백서는 http://www.gov.cn/zwgk/2005-05/27/content_1540.htm (검색일: 2015. 3. 24)

67) 박창권, 김창수 외 4인,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서울: 한국 국방연구원, 2010), pp.209-210.

으로는 대양해군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⁶⁸⁾ 이와 관련하여 중국 해군력 강화 중 특히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미 해군의 연안 접근 거부 미사일 전력, 원양 작전 능력, 다음으로 잠수함 전력의 변화 추이이다. 그 밖에도 사이버전, 우주전, 합동작전 능력 등도 이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대양해군’을 꿈꿔 온 중국이 2007년 사상 처음 대서양 해역까지 진출해 영국 항공모함과 첫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그 이후 중국 해군은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과 해상 훈련을 진행하였고 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 해군의 해양 강국화 전략과 맞닿아 있다.⁶⁹⁾

가. 대함 탄도 미사일(ASBM) 전력

중국은 통일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군사적 장애물인 미국의 대만 접근 거부능력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이 이미 1995-96년 대만해협 위기 때 중국을 위협한 항공모함 전대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다. 현실적으로 미 해군과 교전할 역량이 미비한 중국의 현실에서 미 항모를 격침시킬 수 있다면 미국의 참전 의지 및 개입 역량을 크게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거리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대대만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대 대만 접근 거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국 남부 지역에 재래식 정밀 타격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DF-10s 계열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은 1200기 이상 배치하였고, YJ-62와 같은 각종 대함 미사일은 물론이고, DF-21 계열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이와 관련해 개발하고 있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DF(東風)-21D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세계 최초의 대함 탄도 미사일(ASBM)이다. 미 해군 연구소에 의하면 이론대로 작동한다면 사정거리가 대략 1500Km~2700Km 범위로 대만에 접근하는 미국 항공모함을 단 한 번의 타격으로 격침시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이다.⁷⁰⁾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원 지점을 알지 못한다면, 현존 일상

68) 윤석준은 이를 두고 중국식의 먼로독트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Sukjoon Yoon, “The Emergence and Consolidation of a Chinese Version of the Monroe Doctrine,” Sham Sieger (ed), *KAS Journal on Contemporary Korean Affairs* 1/2013, pp.43-72.

6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jnam99&logNo=110022086799> (검색일: 2015.3.24)

적인 무기체계로는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없고 다만, 전자파 무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러시아 측의 분석이다.⁷¹⁾ 중국은 이 미사일을 2013년에 실험한 바 있고,⁷²⁾ 2009년 이후 이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한 우주 기반 위성들을 집중 발사하였다. 최근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erminal High Attitude Area Defense: THAAD)」 도입과정에서 중국이 크게 민감해하는 레이더 체계가 이러한 미중 간의 전략적인 알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추후 이 미사일의 성능을 더욱 개량하여 이동형 다탄두 체제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나. 원양해군 작전 능력

중국은 2020년까지 세계 8대 해양강국, 2050년까지 세계 3대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⁷³⁾ 여기서 중국의 해양강국 의지를 가장 잘 구현하는 것이 원양 해군 작전능력이다. 우선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 함의 취역이다. 중국은 2002년 우크라이나에서 구입한 항공모함을 개조하여 2012년 마침내 첫 운항에 성공하였다. 본래 항공모함 전대 운용의 꿈은 1980년대 중반 류화칭 제독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상대적으로 정책과 재정 우선순위에서 밀려 추진되지 못하다가 후진 타오 주석 시기 해양에 대한 재주목과 더불어 추진되었다.

중국은 러시아 Su-33 전폭기의 항공모함용 중국 버전인 J-15을 이미 랴오닝 항공모함에 배치하여 2012년에 이착륙 실험을 마친 상태이며, 조만간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폭기 J-31로 이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항공모함 전대를 구성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소브레메니 급 구축함 등 호위함정, 군수지원함, 조기경보기, 대잠수함 작전 및 수개 구조용 헬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기술적 필요나 중국 군부의 사고로 볼 때, 중국은 향후 적어도 3개의 항공모함 전대를 필요로 하고,⁷⁴⁾ 이미 2022년 취역을 목표로

70) <http://en.wikipedia.org/wiki/DF-21> (검색일: 2015.3.24)

71) Ibid.

72)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regions/asia-pacific/130130/chinas-test-df-21d-missile-mock-us-aircraft-carrier-gobi-d> (검색일: 2015.3.24)

73) 황재호, “2014년 중국의 국방,” 『2014 중국정세보고』(서울: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2015), p.340.

74) 군사과학원 류원(劉源) 장군의 이에 대한 주장은

http://www.spacewar.com/reports/China_needs_at_least_three_aircraft_carriers_general_999.html (검색일: 2015.3.24.) 참조.

략오닝함 이외에 또 다른 두 척을 건조중인 것으로 보인다.⁷⁵⁾ 영국의 2014년 6월 18일자 『제인국방주간』은 중국 해군이 2019년까지는 추가로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⁷⁶⁾ 중국 해군예산 가운데 항공모함과 관련된 비용이 어림잡아 그 1/3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경제력과 국방비 규모가 훨씬 팽창할 미래에는 여건이 보다 개선되었지만 어찌되었던 항공모함 기동강습단 구성에 중국 지도부 및 중국 해군이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⁷⁷⁾

중국은 이미 2008년 중동의 아덴만에 해군 구축함 2척을 파견하여 대해적 퇴치 작전 중에 있으며, 최근 들어 수많은 원양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모두 중국의 원양 해군을 육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해양 실크로드에 위치하면서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 중인 항구들은 이러한 중국의 원양 작전에 주요한 거점이 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능력 강화는 당장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대공 및 대잠 방어능력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모함의 방어는 냉전 시기 미국조차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드러내준다.⁷⁸⁾ 미국과의 전쟁을 상정했을 때, 중국의 항공모함 전대는 거의 방어 불능에 가까울 것이다. 중국의 항모 전대는 아마 당분간은 미국에게는 쉬운 목표물인 대신 중국 해군의 위신을 크게 제고하고, 현재 분쟁중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변국들에 주는 위압 효과, 에너지 수송 라인을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유사시 난민 수송 등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⁷⁹⁾ 중국이 비용 대비 대미국전에 취약한 항공모함에 집중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시진핑이 제시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과 (세계 패권을 놓고)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근처에는 현실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대결

75) <http://www.wantchinatimes.com/news-subclass-cnt.aspx?id=20131211000053&cid=1101>;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1/aug/1/china-begins-to-build-its-own-aircraft-carrier/?page=all> (검색일: 2015.3.24)

76) 윤석준,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와 도전,” p.14 재인용.

77) 박창권, 김창수 외 4인,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 pp.222-223.

78) <https://medium.com/war-is-boring/how-to-sink-an-aircraft-carrier-f281fbc518fd>;
http://www.spacewar.com/reports/Submarines_Versus_Aircraft_Carriers_Part_One_999.html (검색일: 2015.3.24)

79) <http://www.bloombergvew.com/articles/2014-04-09/china-s-aircraft-carrier-is-nothing-to-fear> (검색일: 2015.3.24)

하기 어려운 열세의 상황도 존재하고, 동시에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무기 체계 대신 오히려 덜 위협적인 항공모함에 투자하는 것 역시 중국의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다. 중국의 잠수함 능력

현재 해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는 잠수함일 것이다. 미국의 항공모함에 가장 위협을 주는 것도 중국의 잠수함일 것이다. 영국의 제인(Jane)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군에서 가장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는 영역중 하나가 잠수함 분야이다.⁸⁰⁾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초보적 단계에 머물렀던 중국의 잠수함 전력은 이제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75척 이상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아마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무기체계는 잠수함발사 핵탄두(SLBM)를 장착하고 핵동력에 의해 추진되는 원자력 잠수함의 존재일 것이다. 중국이 이를 실전배치하여 급속히 수를 확대한다면 현재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은 무력화 될 것이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크게 의미를 잃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체계이다.

중국은 현재 10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네 척이 1세대 잠수함 091 한(漢)급, 2세대 잠수함으로 한 척의 092 시아(夏)급, 두 척의 093 상(商)급, 그리고 네 척의 094 진(秦)급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⁸¹⁾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이들을 개발하려 노력하였으나 기술상의 문제점으로 실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한 채 노후화되어 093급 및 094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퇴역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12년 마침내 잠수함 발사 핵탄도 미사일 실험에 성공하여 2013년부터 이를 094 진급 잠수함에 배치하였다고 하였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⁸²⁾ 그 다음 세대인 095 및 096급 잠수함을 개발 중에 있지만, 당분간은 여전히 아직 실전 배치되지 못한 094급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핵탄두인 쥐랑2의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

80) "Jane's Sentinel Security Assessment - China" *IHS Jane's Defense Weekly*, February 17, 2014, www.janes.com.

81) "World Navies - China" *IHS Jane's Defense Weekly*, February 17, 2014, www.janes.com.

82) Ridzwan Rahmat, "Model suggests possible variant of Qing-class sub," *IHS Jane's Defense Weekly*, June 18, 2014, p.14; 미 국방부는 신형 잠수함이 2015년에 취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http://www.nti.org/analysis/articles/china-submarine-capabilities/>;

<http://thediplomat.com/2011/10/chinas-overhyped-submarine-threat/> (검색일: 2015.3.24)

인다.

중국이 그 밖에도 60여척이 넘는 디젤 추진 잠수함을 보유중이나 이는 원양작전 능력은 없다. 다만, 대만 해협에 진입하는 미 해군에는 위협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밖에서 운용되는 미 해군에 대한 공격력은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 중국은 결국 원양해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핵 억지력의 핵심인 제2차 핵보복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핵탄도 미사일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아직까지 중국이 이 분야에 전력을 쏟아 붓지 않고, 항공모함 전력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잠수함 능력의 확대는 결국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대처는 미국이 아마 가장 곤혹스런 영역이 될 것이다. 향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잠수함 능력 증진의 속도와 정도가 결국은 미중 관계를 독해하는 주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IV. 결 론

해양 영역에서 변화하고 있는 미중 관계는 새로운 미중관계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지표가 된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는 패러다임 변화에 준하는 수준의 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발전도상국에서 강대국, 대륙국가에서 대륙-해양국가로의 정체성 변화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연속성이 강한 중국의 정치문화와 권력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중국 전문가들조차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중국은 더 이상 지역 국가나 지역 내 주도권을 경쟁하는 지역강국으로서가 아니라 세계를 전략공간으로 보고 이를 대상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할 대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시기 들어 중국은 “새로운 강대국관계”이라는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이 “새로운 강대국관계”는 오바마 2기 행정부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려는 시진핑 체제의 핵심키워드로서 중국은 ‘서양장기’ 게임이 아니라 ‘동양바둑’ 게임을 하겠다는 것이다. 해양강국건설 전략은 중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을 잘 담아내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대륙-해

양의 이중 정체성을 적극 수용하면서 해양을 적극적으로 국가발전 전략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외교력이나 군사력에 앞선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기보다는 ‘협력적인 세력균형’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이점을 살려 점차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해상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건설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신 해양 실크로드를 구축하여 결국은 외교·안보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군사부문에서 당장은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자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자국의 핵심이익과 연관된 통일 추진을 위한 ‘반접근·반거부(A2/AD)’ 역량은 강화하고 있다. 다만, 미국 아태지역의 주도권을 위협할 본격적인 경쟁은 아직 자제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항공모함 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핵잠수함 개발 및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배치를 후순위에 둔 우선순위 선택에서 드러나고 있다.

현재의 추이로 보자면, 2020년대에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제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셰일가스 혁명으로 팍스 아메리카나 3.0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처럼 미국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2.0의 시대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미중은 바야흐로 서로 강력한 국력을 유지한 채 새로운 제도·규범 경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아직 새로운 국제체제에서 구체적인 규칙과 묵계 등을 정하지 못했고 사안에 따라 협의, 조정, 갈등, 타협, 합의의 과정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⁸³⁾ 미국이 상당기간동안 외교·군사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겠지만 새로운 국제관계에서 그 활용과 성공은 중국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미중 간 ‘복합적인 협력과 경쟁 구도’가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한국은 점차적으로 더더욱 선택의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미중의 압박과 견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83) 이러한 맥락에서 정리한 빅터 차의 글은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839789&cloc=olink|article|default
(검색일: 2013.8.24)

참고문헌

- 習近平, 『習近平: 談治國理政』(北京: 外文出版社, 2014)
- 陳亞青, “中國國際關係論,” 王逸舟 主編, 『中國對外關係轉型 30年』(北京: 社會科學出版社, 2008).
- 王義桅, “中國作爲領導型國家的全球布局,” 『南風窗(South Reviews)』 2015年 5期 (<http://www.nfcmag.com/article/5371.html> (검색일: 2015.3.19))
- 王緝思, “中美最大的战略互疑是兩個秩序,” <http://finance.ifeng.com/news/special/SinoUSrelations5/> (검색일: 2015.3.21)
- 王緝思, “中美新型大國關係或10年後成型,” <http://hk.crntt.com/crn-webapp/search/allDetail.jsp?id=103566907&sw=%E7%8E%8B%E7%BC%89%E6%80%9D> (검색일: 2015.3.24)
- 徐僞新, 『中國新常态』(北京: 人民出版社, 2014)
- 陳一新, “習崇毛抑鄧大戰略的挑戰,” 『國政評論』 104-022號, 2015年 3月 2日
- 劉中民 (이용빈 역), 『중국 근대 해양방어 사상사(中國近代海防思想史論)』(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김민석, “중국의 해양강국 지향과 지역 해양안보 함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편, 『2014-2015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 김태호,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 추이,” 『Strategy 21』 제21호(2008년 봄, 여름호).
- 김흥규, “중국 국제관계이론의 수용과 발전 연구 소고,” 『한국정치연구』 제19집 제2호 2010.
- 김흥규, “중국 동반자외교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2호 (2009).
- 김흥규, “시진핑시기 미중의 새로운 강대국 관계 형성 전망과 대한반도 정책,” 『국방연구』 제56권 제3호 (2013년 9월).
- 김흥규,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안보 전략의 진화,” 『외교』 제11호 (2014. 07).
- 김흥규, “중국군 현대화 방향과 함의: ‘2006 중국국방백서’ 분석을 넘어서서,” 『주요국제문제분석』(외교안보연구원, 2007. 3. 8).
- 박창권, 김창수 외 4인,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서울: 한국 국방연구원, 2010).
- 엄태암, 유지용, 권보람,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정책과 한반도 안보』(서울: KIDA Press, 2015).
- 윤석준,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와 도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편, 『2014-2015 동아

- 시아 해양안보정세와 전망』(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 이상현, “아태지역 정세와 미국의 전략적 재균형,” 『외교』제11호 (2014. 7).
- 이지용, “중국의 국가정체성 진화와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변화,” 『국제관계연구』 제 19권 제1호 (2014년 봄호).
- 황재호, “2014년 중국의 국방,” 『2014 중국정세보고』(서울: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2015).
- Clemens, Morgan. “The Maritime Silk Road and the PLA: Part Two,” *China Brief* Vol. XV, Issue7, April 3, 2015.
- Goldrick, James. “Cue Co-operation?,” *IHS Jane’s Defense Weekly*, May 21, 2014.
- “Jane’s Sentinel Security Assessment – China” *IHS Jane’s Defense Weekly*, February 17, 2014, www.janes.com.
- “World Navies – China” *IHS Jane’s Defense Weekly*, February 17, 2014, www.janes.com.
- Ji, You. “China’s Navaql Strategy and Transformation,” Lawrence W Prabhakar, Joshua Ho, Sam Bateman (eds.), *The Evolving Maritime Balance of Power in the Aisa-Pacific* (Singapore: World Scientific, 2006).
- Joffe, Ellis. *The Chinese Army After Mao*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 LaGrone, Sam. “Work: Sixty Percent of U.S. Navy and Air Force Will Be Based in Pacific by 2020,” *USNI*, September 30, 2014.
- Little, Richard. “Deconstructing the balance of power: Two traditions of though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15 (1989).
- NIC 2030: Alternative Worlds*.
<https://globaltrends2030.files.wordpress.com/2012/11/global-trends-2030-november2012.pdf> (검색일: 2015.3.21.)
- Pehrson, Christopher J. “String of Pearls: meeting the challenge of china’s rising power across the asian littoral” (July 2006) at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dffiles/PUB721.pdf> (검색일: 2015.3.21.)
- Pitlo III, Lucio Blanco. “China’s One belt, One Road”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075293Where? *The Diplomat* (February 17, 2015).
- Rahmat, Ridzwan. “Model suggests possible variant of Qing-class sub,” *IHS Jane’s Defense Weekly*, June 18, 2014.

- Reuters. "China's Xi meets Panetta, wants better military ties with U.S" (20120919), <http://egloos.zum.com/blackace/v/5679058> (검색일: 2015.3.21.)
- Ross, Robert. "China's Naval National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34, No.2 (Fall 2009).
-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January 3, 2012.
- The White House. "Press Briefing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Tom Donilon," June 8, 2013.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6/08/press-briefing-national-security-advisor-tom-donilon> (검색일: 2013.7.15.)
- Yoon, Sukjoon. "The Emergence and Consolidation of a Chinese Version of the Monroe Doctrine," Sham Sieger (ed), *KAS Journal on Contemporary Korean Affairs* 1/2013
<http://www.43577.com/culture/1567/76685.shtml> (검색일: 2015.3.21)
<http://www.wantchinatimes.com/news-subclass-cnt.aspx?id=20131211000053&cid=1101;>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1/aug/1/china-begins-to-build-its-own-aircraft-carrier/?page=all> (검색일: 2015.3.24)
<https://medium.com/war-is-boring/how-to-sink-an-aircraft-carrier-f281fbc518fd> (검색일: 2015.3.24)
http://www.spacewar.com/reports/Submarines_Versus_Aircraft_Carriers_Part_One_999.html (검색일: 2015.3.24)
[http://www.nti.org/analysis/articles/china-submarine-capabilities/;](http://www.nti.org/analysis/articles/china-submarine-capabilities/)
<http://thediplomat.com/2011/10/chinas-overhyped-submarine-threat/> (검색일: 2015.3.24.)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839789&cloc=olink|article|default (검색일: 2013.8.24)
<http://www.bloombergview.com/articles/2014-04-09/china-s-aircraft-carrier-is-nothing-to-fear> (검색일: 2015.3.24)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regions/asia-pacific/130130/chinas-test-df-21d-missile-mock-us-aircraft-carrier-gobi-d>(검색일: 2015.3.24)
http://www.spacewar.com/reports/China_needs_at_least_three_aircraft_carriers_general_999.html (검색일: 2015.3.2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jnam99&logNo=110022086799> (검색일: 2015.3.24)

- <http://en.wikipedia.org/wiki/DF-21> (검색일: 2015.3.24)
- <http://world.people.com.cn/GB/8212/191816/392165/> (검색일: 2015.3.15)
-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54>
(검색일: 2015.3.24)
-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7/65446/4526308.html>
(검색일: 2015.3.24)
-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106155/106156/6430009.html>
(검색일: 2015.3.24)
- <http://cpc.people.com.cn/n/2012/1118/c64094-19612151.html> (검색일: 2015.3.24)
- [http://en.wikipedia.org/wiki/String_of_Pearls_\(Indian_Ocean\)](http://en.wikipedia.org/wiki/String_of_Pearls_(Indian_Ocean)) (검색일: 2015.3.21)
- http://tamilnation.co/intframe/indian_ocean/060701string_of_pearls.htm
(검색일: 2015.3.15)
- <http://www.dailymail.co.uk/indiahome/indianews/article-2566881/Chinas-mari-time-silk-road-proposals-not-peaceful-seem.html> (검색일: 2015.3.15)
- http://www.gov.cn/zwgk/2005-05/27/content_1540.htm (검색일: 2015.3.24)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224920&cloc=joongang%7Carticle%7Ccomment (검색일: 2015.3.21)
- <http://opinion.caixin.com/2014-09-22/100731843.html>(검색일: 2015.3.24)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512010003409> (검색일: 2015.3.21)
- <http://iipdigital.usembassy.gov/st/english/texttrans/2013/06/20130608275760.html#axzz3VjeihZrU> (검색일: 2015.3.21)
- <http://cpc.people.com.cn/n/2014/1113/c64094-26012270.html> (검색일: 2015.3.21)
-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11/12/remarks-president-obama-and-president-xi-jinping-joint-press-conference>
(검색일: 2015.3.21)
- http://www.gov.cn/1dhd/2013-06/08content_2422916.htm (검색일: 2015.3.21)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11809212509011&outlink=1> (검색일: 2015.3.21)
-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11/12/remarks-president-obama-and-president-xi-jinping-joint-press-conference>
(검색일: 2015.3.21)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03/0200000000AKR20131203204800073.HTML?input=1179m> (검색일: 2015.3.21.)

Abstract

China's Pursuit for Seapower and New U.S.-China Relationship

KIM, Heung - Kyu *

A Paradigm shift is in process in China's foreign policies during Xi Jinping's era. Such changes occur with changing national identities from developing country to great power, and from continental power to continental-maritime power. China's pursuit for sea power embraces its global strategy. Accommodating the new identity of maritime power, China is developing its maritime strategy. New silk-road strategy actively utilizes China's advantage in economy, while avoiding direct military challenges against the U.S. China seeks an associated balance of power with the U.S.

On the other hand, China make its determination clear to protect its core national interests, particularly Taiwan straits issue, deploying Anti-Access and Area-Denial strategy. 'Pax-Americana 3.0' and 'China's rise 2.0' have convoluted and evolved in complexity. South Korea faces much tougher challenges ahead in its foreign and security environments.

Key Words: Sino-US Relations,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Pax-Americana 3.0, Rise of China 2.0, New Maritime Silk Road

논문접수: 2015년 3월 16일 | 논문심사: 2015년 4월 3일 | 게재확정: 2015년 4월 7일

* Professor and Director, Ajou China Policy Institute at Ajou University